

# Deloitte.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Newsletter

## 「2025년 이사회 아젠다」 및 2월 동향

2025.02 카드뉴스

# 리더 메시지

『2월 Newsletter』는 딜로이트 글로벌 보고서  
『2025년 이사회 아젠다』 등을 소개하며,  
『내부회계관리제도 주요 위반 사례 및 유의사항』,  
『XBRL 재무제표 본문·주석 작성 가이드 마련』 등의  
규제 동향을 담았습니다.

또한, 센터 접수 질의 사안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관련 감사위원회 감독』 등을 수록했습니다.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활동에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김한석 센터장



# 2025년 이사회 아젠다

복잡성과 기회의 시대, 이사회는 리스크를 기회로 전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 지정학적 리스크 대응

- 행정부 교체로 무역, 조세정책, 글로벌 공급망, 동맹 관계의 변화 가능
- 이사회는 지정학적 리스크 대응 역량 강화 필요 (전문성 보유 이사 영입, 외부 전문가 활용 등)



## 규제 환경 변화와 대응 전략

- 행정부 교체로 기후변화, 금융 서비스 등 기존 규제 재검토 가능성
- 이사회는 경영진의 규제 대응 전략 감독 및 피드백 제공을 통한 대응체계 구축에 기여



## 전사적 리스크 관리(ERM) 강화

- 리스크 증가 및 복잡성 심화로 ERM 체계 고도화 필요
- 이사회·감사위원회는 기존 ERM 체계의 전면 재검토 및 실효성 강화 필요



## 기술 혁신과 리스크: 사이버보안 및 생성형 AI

- 사이버보안은 기업 신뢰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전략적 기회
- 생성형 AI는 효율성과 혁신 기회를 제공하지만, 윤리·데이터 신뢰성 등 리스크도 수반
- 이사회는 경영진이 AI 활용 전략과 리스크 관리 방안을 균형 있게 수립하도록 감독

# 2025년 이사회 아젠다



## 생성형 AI 관련 이사회 고려사항:

이사회는 생성형 AI 활용이 기업의 지배구조 및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 필요



- ☑ 생성형 AI는 이사가 신의성실 의무 이행 시 유용한 질문을 제시할 수 있는가?
- ☑ 생성형 AI는 이사회가 다양한 시나리오의 전개 가능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검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가?
- ☑ 생성형 AI는 경영진이 수립한 전략 및 재무 예측 모델에서 사용된 가정에 오류가 있는지 식별하고, 대체안을 제시할 수 있는가?
- ☑ 생성형 AI는 재무 보고서의 오류 또는 내부통제 취약점을 식별하여 감사위원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가?
- ☑ M&A(인수합병) 과정에서, 생성형 AI가 인수의 성공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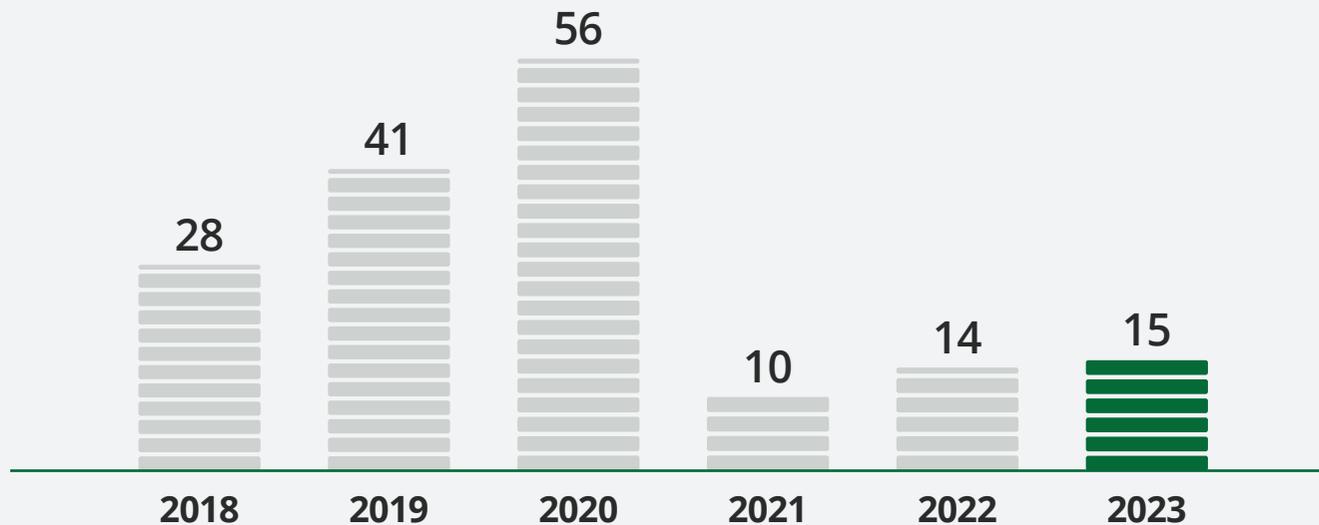
# 내부회계관리제도 주요 위반 사례 및 유의사항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부정과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기업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충실하게 운영 및 관리해야



2023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법규 준수 실태 점검 결과,  
총 **15건**의 위반이 발견되어 과태료 부과

## 연도 별 위반 건수



- 주요 위반 사례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미구축(5건), 운영실태·평가 미보고(6건), 검토의견 미표명 (4건)
- 위반 건수는 감소 추세이나, 재무·경영 상황 악화, 착오 등으로 위반 사례는 여전히 발생

# 내부회계관리제도 주요 위반 사례 및 유의사항



회사는 당해연도가 아닌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 등을 확인해 내부회계관리제도 **대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 필요

-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하더라도 **개시 이전 연도**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의무가 있음**
- 비상장법인 중 **금융회사**,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대상**
- **내부회계관리자**를 반드시 **지정**하는 등 관련 **인력**을 충실히 갖추어 **내실 있게 운영**
- 대표이사와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및 평가** 내용을 **보고**하고 이를 **기록·관리**
- 2024 회계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 적용**



외부감사인은 내부회계 **미구축 회사**,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비적정 회사**에 대해서도 **반드시** 내부회계 **의견 표명** 필요

- 2023 회계연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주권상장법인**은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감사 대상**

# XBRL 재무제표 본문·주석 작성 가이드 마련

자본시장 신뢰 제고 및 글로벌 시장 내 국내 기업가치의 정확한 평가 기반 구축 기대

✓ 금융감독원은 상장사의 **정확한 국제표준 전산언어(XBRL) 재무데이터 생성을 유도**하고, **자체 데이터 품질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가이드 제시

→ 美 SEC(증권거래위원회) 및 데이터 품질 관리 기관의 작성지침을 참고해 **국제 정합성 확보**

✓ 세계 최초로 **회계기준, XBRL 주석 모범사례 및 유의사항 등 반영**

→ 비전문가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기업의 자체적인 XBRL 주석 작성·관리 능력 향상에 따른 **외부 전문가 비용 절감 기대**

## 상장사 XBRL 주석 재무공시 단계적 시행 방안 (12월 결산법인 예시)

적용 단계 ① ② ③ ④

구분	최초 적용시기(비금융업)			최초 적용시기(금융업)		
	①	②	③	②	③	④
	'23년도 사업보고서 '24년 3월 제출	'24년도 사업보고서 '25년 3월 제출	'25년도 사업보고서 '26년 3월 제출	'25년도 반기보고서 '25년 8월 제출	'26년도 반기보고서 '26년 8월 제출	'27년도 반기보고서 '27년 8월 제출
상장사 (유가증권, 코스닥)	2조원 이상 (기시행)	5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5천억원 미만	10조원 이상	2조원 이상~ 10조원 미만	2조원 미만
	156사	340사	1,825사	27사	14사	93사

※ 직전 사업연도 개별자산총액에 따라 대상 회사는 매년 변동 가능 ('23년도 결산기준 예시)

☐ 금융감독원, 「국내·외 투자자가 재무분석에 활용하는 XBRL 데이터 품질을 강화하기 위하여 작성 가이드를 마련했습니다.», 2025.01.21.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관련 감사위원회 감독

**Q.** 최근 공개매수자 및 자문사 직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이에 따른 위험요소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감사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내부자가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개인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 금지) 위반이며, 이는 회사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이를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기 前인 정보

특히, 공개매수 정보, 유상증자 결정, 최대주주 변경 등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사전 유출되지 않도록 점검해야 합니다.

감사위원회는 미공개중요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감독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 내부정보 접근·공유에 대한 적절한 규정의 마련 및 시행 여부 점검
- 내부정보 활용 감시 프로세스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 정기적인 검토 수행
- 공개매수(예정)자, 자문사 등 임직원 대상 법적·윤리적 교육의 정기적 시행 여부 점검
- 법무·컴플라이언스 팀이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시 직접 협력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관련 감사위원회 감독

또한, 감사위원회는 내부정보 보호 및 감독 강화를 위해 내부통제 프로세스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 임직원 거래 감시 시스템 구축·운영 여부
- 내부정보 접근 제한, 정보 암호화, 외부 공유 통제 등의 내부통제 절차의 적절성
- 적발 시 보고체계 및 내부감사 프로세스 수립·운영 여부



금융당국은 공개매수 종목의 불공정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 조치할 계획임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내부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규제 변화에 대한 이사회·감사위원회 모니터링 보고체계를 확립하며, 자본시장 관련 법률 및 규제 변경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Contact

딜로이트 안진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는  
기업의 회계투명성 확보와 거버넌스 개선을 지원합니다.

## 파트너



### 김한석 파트너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리더 |  
Audit & Assurance  
✉ [hansukim@deloitte.com](mailto:hansukim@deloitte.com)



### 정현 파트너

Partner | Audit & Assurance  
✉ [hyunjeong@deloitte.com](mailto:hyunjeong@deloitte.com)



### 김학범 파트너

Partner | Strategy, Risk & Transactions  
✉ [hbkim@deloitte.com](mailto:hbkim@deloitte.com)



### 오정훈 파트너

Partner | Audit & Assurance  
✉ [junoh@deloitte.com](mailto:junoh@deloitte.com)

## 자문교수단



### 장정애 교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노준화 교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  
충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문의 [krccg@deloitte.com](mailto:krccg@deloitte.com)



앱스토어, 구글플레이/카카오톡에서 '딜로이트 인사이트'를 검색해보세요.  
더욱 다양한 소식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 Deloitte.

딜로이트 안진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krccg@deloitte.com

김한석 Partner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센터장  
hansukim@deloitte.com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http://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Bengaluru,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Mumbai, New Delhi,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